

국립돌리소

오늘부터 익산시업무추진 보고

익산시는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사항 점검을 위해 2016 결산보고 및 2017년 신규시책 보고회를 이지역 부시장 주재로 4일부터 4일간 개최한다.

4일 문화산업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을 시작으로 5일 주민생활지원국, 안전행정국, 6일 환경복지국, 농업기술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7일 건설교통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하게 되며 특히 시정방향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동농상생발전 기반구축 등 2016년 익산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지역 부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하다. 시정 전반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자"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컨테이너 부두 임대료 납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중민)은 컨테이너부두 TOC 임대료 체납으로 해지 위기에 있던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에서 2014년부터 체납된 TOC 부두 임대료 약 21억원을 지난달 29일 납부(해소)했다고 밝혔다.

군산해수청은 그동안 컨테이너부두의 체납 임대료를 해소하기 위해 납부촉박,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았으나 체납임대료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8월 10일 주주사 간담회를 실시해 9월까지 체납 임대료를 납부토록 하고, 미납 시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TOC부두 계약을 해지할 계획임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의 주주사인 CJ대한통운(주), 세방(주), (주)선광 등 3개사가 차입금 형식으로 27억원을 부두임대료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하여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의 해지 위기 및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줬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군산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군산지역 대학생에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재학기간 동안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업 의지에 따라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군산시가 추구하는 창의인재 교육도시의 미래 인재 육성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3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수혜 가능자가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16년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 발생분에 한하며, 2016년 10월 5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국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5일부터 31일까지이며,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 남중동 희망동행 새출발

익산시 남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1명은 지난달 30일 남중동주민센터 3층(꽃밭재)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남중동 희망동행의 새로운 출발을 일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복지허브화를 깊이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 세칙을 정하고, 민관협력 특화사업인 나눔보따리 지원사업 외 2개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남중동 주민센터는 익산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포함되어 10월부터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돼 남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남중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누게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되돌아보다

군산시간여행축제 성료 새로운 프로그램 선보여 관광객들에 큰재미 안겨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몫



'근대, 추억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개최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3일 동안의 흥겨움을 뒤로하고 막을 내렸다.



'근대, 추억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개최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3일 동안의 흥겨움을 뒤로하고 막을 내렸다.

곳은 날씨 속에 펼쳐진 이번 축제는 시간적 배경의 확장을 통해 아팠던 우리의 역사를 돌아봄과 동시에 축제로서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축제의 본격적인 분위기를 알리는 3.5만세 퍼레이드는 화려한 불꽃 공연으로 출발 전부터 뜨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참여를 희망한 외래 관광객 그리고 여성단체, 노인회, 걷기연맹 등 각계각층에서 군산시간여행의 시작을 함께했다. 퍼레이드에 이어진 개막 주제공연은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더 나

은 내일을 다짐하지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개막식은 딱딱한 형식의 의전위주를 탈피해 관객위주의 진행으로 축제장을 찾아준 관광객들이 축제의 주인공임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8시 선포식을 통해 '헬로 모던'으로 다시 태어난 군산관광 브랜드를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알려 군산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2016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역사적

교훈뿐만 아니라, 축제의 즐거움을 위하여 'FOREVER 대학가요제'와 '변사와 함께하는 타임슬립 고고장'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더욱 새로워진 야간 콘텐트로 관광객들이 체류하며 다음날에도 축제장을 다시 찾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시간여행축제의 주요 체험형 프로그램인 '찾고 쫓기는 각시탈'에는 독립군을 체험하는 어린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 청소년과 성인들의 뜨거운 참여가 이어졌다.

축제기간동안 일명동 원도심 일원 뿐만 아니라 군산시내 전역에는 곳곳은 날씨에도 종일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유명한 찜빵집, 호떡집, 횡집 등 유명한 음식점과 커피숍이 하루 종일 관광객으로 북적여 원도심 활성화에 큰 몫을 했다는 평가다.

원도심 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는 조기에 예약이 마감되어 관광객들이 나운동, 초촌동 등 숙박업소를 찾아 해매는 진풍경을 연출하

기도 했다.

김형철 주민복지국장은 "올해 네 번째를 맞는 시간여행축제는 성장해 가는 축제라 약간의 아쉬움이 존재하지만 퍼레이드, 어린이독립군체험, 타임슬립 고고장 등 시민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며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내년 축제는 더욱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에 관광객들이 '시간여행'을 느끼는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새만금 복합리조트, 경제활성화 원동력"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공항 등 내부개발 가속화 기회 될 것"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지난달 30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산지역 주요현안 설명과 함께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군산지역 현안문제인 새만금 송전철탑,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에 따른 롯데아울렛입점, 군산전북대병원, 새만금 복합리조트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복합리조트 조성은 통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항, 항만, 도로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복합리조트를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싱가포르는 수많은 토른을 거쳐 약 7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인 마리나베이샌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2010년 정식 개장했다. 45년간 카지노를 불허해 온 싱가포르가 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복합리조트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 도입 후 2009년 -0.8%에 불과했던 경제성장률이 1년만인 2010년에는 14.8%로 급등했다. 지금은 매년 2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고, 복합리조트 한곳에서만 3만 3000명이 고용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새만금 복합리조트는 단순한 카지노 시설이 아니라 호텔과 컨벤션시설, 전시, 쇼핑센터, 놀이시설들이 결합된 복합관광시설"이라며 "카지노 시설은 전체의 3%미만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합리조트에 수반되는 카지노에 반대하는 분들과 그분들의 견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우려 때문에 10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건설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 비리 '수면 위'

군산해경, 비응항 정화 과정서 서류 조작한 50대 등 6명·업체 4곳 입건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에 민연한 불법행위가 해경에 의해 수면위로 떠올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군산시 비응항 해양환경 정화사업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사업비를 편취한 A씨(현장소장, 58) 등 관리자 6명과 해당업체 4곳을 사기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비응항 해양환경 정화사업' 과정에서 수거한 폐기물 양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을 악용해 육상 폐기물 60톤을 들여와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총사업비 3억2400만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육상 폐기물을 작업 선박으로 옮겨 실은 뒤 해수와 개흙(땀)을 묻혀 바다에서 수거한 폐기물처럼 둔갑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사업 발주기관인 감독관 B씨(31)의 묵인 하에 허가증만 빌려 무자격업체가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등 업체들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도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노력과 반대로 현장에서는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고 있어 해양 정화 사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 정화사업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가 필요한 항·포구를 선정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경쟁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수거와 운반, 처리를 맡게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원광대병원-이리성애모자원 금연지원서비스 협약 체결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 전 북금연지원센터가 지난달 29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이리성애모자원(원장 최미화)과 금연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원광대병원 전 북금연지원센터는 이리성애모자원 내 여성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건강교육, 기초 건강검진 등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무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금연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북지역 여성흡연자의 흡연예방 및 흡연을 감소에 뜻을 같이하기

로 했다. 원광대병원 전북금연지원센터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기존의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여성흡연자들에게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전문 여성금연상담사와의 1대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특성화사업단

창의성 개발캠프 참가 학생들 자격인증시험 합격

원광대학교 특성화사업단(CK)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창의성 개발캠프 참가 학생 79명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기준인 TRIZ Level 1 자격인증시험에 최종합격하는 성적을 올렸다.

창의성 개발캠프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법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14시간의 이론 교육과 문제해결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진행됐으며, 교육 이수와 더불어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하면 TRIZ Level 1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창의적 문제해결의 이해 △트리즈적 사

고를 통한 문제분석 △자원의 개념과 활용 △이상성 등을 활용한 문제인식 및 해결 △모순의 종류 및 해결원칙 △4가지 발명원리 등을 교육받았다.

또한, 캠프 종료와 함께 7일의 시간이 주어진 뒤 진행되는 문제해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별도의 코칭 시간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 심화 과정을 적용한 실습 기회를 갖기도 했다.

특히 원광대 창의성 개발캠프는 특성화사업(CK-I) 프로그램 중 2년 연속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돼 3년간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275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이 중 263명이 TRIZ 자격증을 획득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작품 구경하자... 도내 최초 미술박람회, 군산시

군산소호아트페어, 6일부터 나흘간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전북 최초 미술박람회인 '군산소호아트페어(SOHAART, 쏘아트)'가 열린다.

'아트페어'란 정기적으로 수집, 수백 명의 작가와 갤러리들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 모여 미술품을 거래하는 마켓으로 미술시장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열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국제아트페어, 한국국제아트페어 등을 비롯해 여러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군산소호아트페어 행사는 총 130여개 부스에 7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갤러리의 참가를 배제하고 작가 중심으로 구성해 관람객과 작가의 자유로운 소통 및 저렴한 작품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시회에는 순수미술작품과 함께 캘리그래피, 일러스트 작품 등을 선보이며, 도자기공예, 목공예, 가죽공예 등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 전시와 특별전도 운영한다.

특히 지역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코너인 '30만원 특별전'을 전시기간 내내 운영하며, '마티에르 갤러리-갤러리의 방' 특별전에서는 전북지역에서 쉽게 관람할 수 없었던 '앤디워홀', '살바도르 달리', '베르나르 뷔페'의 판화작품 등이 전시된다.

또한 한국화의 대가故김충길 화백의 유작전과 한국기독교미술대전 수상작 특별전, 대형 야외조각전도 함께

개최돼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인 8일에는 지역미술인들과 어린이들의 소통을 위한 '쏘아트 어린이 미술 살기대회'를 열어 지역 내 어린이와 학부모의 문화체험, 감상발달,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 관람시간은 6일과 7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주말인 8일과 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민의 날 기념식 성료

'제54주년 군산시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달 30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식전 축하공연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양화 드로잉을 역상으로 연출하는 심성희 화백의 축하 퍼포먼스와 세계적인 트론댄스팀인 '생동강그룹'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다.

기념식에서는 군산시의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공헌한 군산시민의 장수상자(문화예술체육장 고병석 씨, 경제산업근로장 성공문 씨)에 대한 시상과 함께 제13회 채만식문학상에 선정된 손승규 작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고, 타의 귀감이 되고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시민 27명을 선발해 그 공적을 기리는 시상식이 열렸다. /군산=문정곤 기자